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4, 선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선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거 교리로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 하위 주제는 역사 신학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선거의 체계적 신학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초기 교회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아르미니우스와 도르트 시노드, 그리고 더 최근에는 스펀전과 하이퍼리스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신이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칼빈주의 침례교의 맥락에서 런던에서 20대 초반의 스펀전에게 은사를 주었고, 그는 그 남자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될 만큼 나이가 많았으며, 그들은 극도로 칼빈주의적이었고, 그는 신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그들을 이겨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선거, 구원을 위해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 역사적 정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예정론 논쟁의 역사적 뿌리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 히포의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 (354~430년), 영국의 도덕가

펠라기우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개종에 대해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니카라는 기독교 여성의 아들이었고,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첩이 있었고, 확실히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집 뒷뜰에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기둥 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거기에 있었고, 인접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놀이 중 하나는 *tole lege* , 들고 읽어, 들고 읽어라는 단어였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어들었고, 우리는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을 추천하지 않지만, 그의 눈은 로마서 13:14에 머물렀고, 그는 읽었습니다. 낮과 같이 바르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고, 음행과 호색에서 벗어나고, 다툼과 시기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체를 준비하지 말자. 말할 것도 없이 , 그는 음행과 호색에 빠져 있었고, 육신이 자신의 죄에 빠지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복음은 그 구절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전에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로마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갔고,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연합하여 왔고, 그의 설교와 어거스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어거스틴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목사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교회의 주교가 되었는데, 그의 영향력은 아마도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개인일 것입니다. 어때요? 루터와 칼빈은 모두 그를 종교 개혁의 공로자로 인정합니다.

사실 칼빈은 내가 모든 가르침을 어거스틴의 글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그와 의견이 달랐지만, 그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또는 BB 워필드는 종교 개혁이 교회와 성례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반하는 예정론과 은혜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개요에서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의 세속적 배경과 수사학 교육은 그가 암브로즈에게 끌린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암브로즈는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사학적으로 건전하고 웅변에 능했으며, 그의 연설은 매력적이어서 궁극적으로 세인트 오거스틴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에 몰두한 것은 모두 거짓 사상 체계였으며, 그의 자서전 고백록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록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입니다. 오거스틴의 고백록.

밀라노 주교 암브로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바울의 서신을 알려주었고, 그 서신을 통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특히 내가 이전에 읽은 로마서 13:13과 14의 구절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로서 북아프리카로 돌아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그에게 인기를 가져다주었고, 그 글들을 통해 구원에서의 단독주의 개념이 로마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405년에 이 개념을 접했습니다. 단독주의는 시너지즘과 대조됩니다. 단독주의는 구원에서 홀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너지즘은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에서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마이클 윌리엄스와 함께 Why I Am Not an Arminian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당신에게 약간의 배경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리 월스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며, 웨슬리안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고, 솔직히 말해서 반 칼빈주의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인터버시티를 위해 왜 내가 칼빈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책을 제안하고

썼습니다. 인터버시티가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 와서 신학과장에게 그의 이름이 데이비드 존스이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슨, 윌리엄스, 당신과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말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존스가 중퇴하고 윌리엄스와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과제를 오해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종류의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불쾌한 일입니다.

우리는 Why I Am a Calvinist를 쓰고 싶었습니다. InterVarsity는 현명하게도 아니요, 아니요, Why I'm Not a Calvinist는 Why I'm Not an Arminian을 반열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들은 토론 책이 아니라, 반열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서로 토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뚜렷하게 다른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사실, 제리는 매우 강력한 반 칼빈주의자이지만, 윌리엄스와 나는 강력한 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복음주의 신학 협회 회의에서 제리 월스를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기뻐하고, 그가 저를 보고,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고, 로버트가 저를 만나서 형제로서 열렬히 인사했다고 말한 것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고객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뿌듯했고,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어쨌든, InterVarsity는 아니라고 말했고, 그것은 제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닌 이유여야 합니다.

글쎄요, 제 학생 중 일부는 "왜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닌가"라고 했지만, "왜 내가 칼빈주의자인가"라고 썼잖아요. 어쨌든, 이 책을 쓰면서, 재능 있는 사람인 윌리엄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를 다른 장에서 그들의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적 분류를 얻었습니다. 왜 이 단어는 항상 저를 은유할까요? 과학적 분류는 또한 a;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찾아봐야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어휘입니다.

분류법,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알죠. 분류법.

윌리엄스는 이 분류법을 세웠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행히도, 펠라기우스가 있는데, 그가 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신학은 좋지 않았고, 로마 가톨릭교도나 웨슬리안교도, 아르미니우스파 펠라기우스파를 루터가 한 것처럼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매우 강력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은 반-펠라기우스주의자일 수 있고, 그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이지만, 펠라기우스주의는 인본주의적 단독주의이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간만이 구원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주의의 신적 단독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주의의 단독주의는 하나님만이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해에 따르면, 구원받기 위해 인간이 회개와 함께 행사해야 하는 그 믿음조차도 신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믿지 않을 것 입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의 단독적 인본주의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단독적 주권 사이에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반어거스틴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신과 인간을 함께 붙잡고 구원을 위해 협력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면서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이며, 최고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는 많습니다 . 사람이 신자이면서도 반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클라크 피녹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선택되었지만 자유로웠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형제이자 위대한 변증가가 썼습니다.

그는 교회에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Chosen but Free는 Norman Geisler가 썼습니다. Norman Geisler와 Clark Pinnock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였고, 다음 예는 Charles Finney에게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뉴욕 주 남서쪽, 뉴욕주 올린 출신입니다. 아마 올리언 타일이나 세인트 보나벤처 대학교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보니 부부는 모두 뉴욕주 올린에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와 버팔로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피니는 유명한 미국 복음주의자였는데, 불행히도 그의 신학은 정말 나빴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큰 잘생긴 악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위해, 어떤 사람은 악을 위해, 지금은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는 불쌍한 사람이 나이아가라 강에 빠지고 폭포로 향하는 것을 상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지 관점입니다.

신은 물 속의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된 땅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단독주의입니다, 알겠죠?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에 따르면, 신과 수영하는 사람이 모두 관련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차이점은 수영자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저를 구해주세요! 신은 항상 죄인을 구원하고 이미지의 관점에서 죄인을 구출함으로써 응답합니다.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신이 먼저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와 더 유명한 존 웨슬리의 보편적인 선행 은혜로, 참된 기독교 신학을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와 많은, 많은 영역에서의 행위로 만듭니다. 저는 제 평가에 따르면 성경적 정박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할 것이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은혜로 의지가 해방된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둘 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시너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그 의붓자식, 그 후손인 칼빈주의는 하나님만이 일한다고 말합니다. 물 속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행사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내시고, 그를 땅으로 끌어올리시고,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가 물 속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아이디어는 알겠죠. 극단적인 것에는 두 가지 단일주의가 있습니다 . 인간적인 것, 펠라기우스, 신성한 것,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이에는 반위치 또는 시너지즘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반펠라기우스주의다. 신이 인간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신과 인간이 함께 일한다.

그럼, 우리는 펠라기우스로 돌아갑시다. 어거스틴은 그의 반펠라기우스 저술로 유명합니다. 그 저술들은 도덕성을 염려하고 로마에서 공언하는 기독교인들의 최악스러운 삶에 불쾌감을 느낀 이 선량한 사람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수도원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저는 수도원주의를 크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 주제의 일부는 아닙니다. 저는 수도원주의와 기독교 도덕주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장하고 전파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405년에 기독교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도착하여 가르치면서 그는 그 도시의 끔찍한 도덕적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듣고, 명령하는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명령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고,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허락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펠라기우스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허락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령하라. 그는 죄를 조장한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이라고 결론지었고, 그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우려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펠라기우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유 감리교, 웨슬리안 감리교, 그리고 복음을 믿는 연합 감리교인들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도 펠라기우스가 아닙니다 .

그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이고, 가장 나쁜 사람은 반-펠라기우스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누군가가 완전한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의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그의 개종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큰 죄의식, 고백록을 읽어보세요, 오, 세상에, 그가 형제들과 함께 한 청년으로서 자신을 묘사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웃의 뒷마당에서 무화과를 훔친 것입니다. 이웃의 정원에서 무화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훔치는 죄스러운 기쁨 때문이에요. *The Waste of It All*은 최악적인 욕망과 죄에 대한 쾌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고전적입니다.

이제, 그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강탈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강탈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죄를 지은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유명한 설명입니다.

어거스틴은 죄성과 신의 구원적 자비에 대한 강한 감각으로 구원이 전적으로 신의 행위이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일 적 은혜 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신의 구원적 은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전달했고 나중에는 반펠라기우스 저술에서 성경적 설명과 함께 더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연대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영과 문자에 대한 서기 412년 ; 본성과 은혜에 대한 서기 415년;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죄에 대한 서기 418년;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한 서기 427년; 성도의 예정에 대한 서기 429년.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타락 이후의 도덕적 자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 타락하고 죄에 속박된 본성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어거스틴 시대 이후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나쁜 관점입니다. 그가 공격하는 관점, 즉 우리는 죄에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무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에베소서 2:1-3). 그들은 마귀에 의해 죄에 묶여 있습니다(고린도후서 4:4).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합니다 .

그들은 영이 부족합니다(고린도전서 2:13, 14).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정하게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체계 신학 책들이 인간과 죄의 교리에 따라 죄인의 무능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아르미니우스 체계 신학 책들이 은혜로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훈적입니다.

즉, 그것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며, 웨슬리는 많은 것을 썼지만, 그의 유일한 공식 신학 서적이거나 논문은 원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원죄의 파괴적인 영향은 보편적인 준비, 선행, 예방적 은혜에 의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무능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아무도 영적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개입하여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로운 능력. 알겠지? 그것이 시스템이다. 선행적 은혜의 교리는 훌륭한 움직임이며 복음에 대한 웨슬리안 이해와 전체적인 체계적 신학을 만든다.

그것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Brian이라는 사랑스러운 학생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그의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예방적 은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아르미니우스파 형제에게 책을 바쳤고, 그는 그에게 예방적 은혜를 소개했고, 그는 그 책을 저에게 바쳤고, 그는 그 책을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의 전 신학 교수인 로버트 피터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교리에 대해 저와 의견이 다르지만, 저를 공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셸턴. 좋은 책이에요. 역사 신학에 강해요.

체계적 신학에 강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강해지려는 용감한 시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 면에서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브라이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정한 형제, 교제의 오른팔을 확실히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료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도덕적 자유가 아니라, 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타락 이후 우리의 최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의지의 자유에 대한 성 어거스틴의 견해는 그 이후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해서, 위대한 칼빈주의 철학자들, 이것은 저에게

행복한 지점이 아니지만,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니콜라스 볼터스토프는
 행복하고 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의 자유 의지 견해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주님 안의 형제로 사랑합니까? 네. 그리고 그들을 동료
 칼빈주의자로 존경합니까? 네. 나는 그들의 움직임에 동의합니까? 아니요.

어쨌든, 신이 그들을 축복하시길. 그리고 그것은 공평하게 말해서입니다.
 의지의 속박에 대한 칼빈주의적 이해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계신학 교수로서의
 제 목표는 주해 신학자가 되는 것이지, 본격적인 체계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학문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철학적 가정이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철학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저는
 철학자가 아니고, 자신의 일을 하는 기독교 철학자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때때로 그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견해는 솔라 스크립투라보다 솔라 필로소피아에 더 부합합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타락, 자유 의지, 죄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대응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이 하나님의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혜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뜻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이제,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하고 효과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선행적 은혜가
 웨슬리와 아르미니우스의 소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동료 개혁 신학
 교수들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보다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보편적인 차원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고, 그저 우리가 신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 우리를 선택한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라틴어 *prevenire* 에서 유래했으며, 앞서 온다는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준비적 은혜이고 선행적 은혜는 좋은 동의어입니다. 선행적 은혜는 보편적이지 않지만, 특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어거스틴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로 지정되고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요. 한 사람은 은혜로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절대적인 신의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 다른 사람은 영생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피터슨은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하지만 저는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니고, 어거스틴입니다. 아르미니우스 형제 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칼빈주의자들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어거스틴주의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칼빈은 어거스틴과 그 점에서 옳습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류 전체, 즉

대중을 보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 , 저주받은 대중들, 하느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들을 지나치셔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정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 에게는 그들이 받을 만한 것, 즉 심판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와 구원이라고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받습니다 .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은, 미안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은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 곧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받습니다 .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정과 은혜는 신의 문제이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파헤칠 수 없습니다. 칼빈과 그에게 온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칼빈은 제네바에서 유일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고, 그녀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만큼 무서워서 칼빈 목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택함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멸망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조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선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칼빈은 미로, 미궁이라는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미궁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그리스도는 선거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가 제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내 신뢰는 오직 그에게만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거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선거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펠라기우스 신학의 기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명령하지 않으신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썄요, 그건 오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벽한 것처럼 당신도 완벽해지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와 베드로전서 1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구절.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분처럼 거룩해지라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처럼 완벽해지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도덕적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불가능한 기준을 주십니다. 아니면 이건 어때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농담하시는 겁니까? 누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자리에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불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인간의 요구에 몸서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어떨까요? 모든 지점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빠지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두 본성의 신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신비에서와 같이, 확실히 덜 중요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례로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원죄에 대한 견해, 즉 모든 아담의 후손이 그의 원죄로부터 죄책감과 타락을 물려받았다는 생각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5:12-19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대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이 나쁜 본보기를 보여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죄인가요? 아니요.

원죄는 그의 죄이며, 우리의 죄입니다. 공정하게 말해서, 로마서 5:12-19를 로마서의 맥락에 놓고 보면, 우선 로마서 1:16과 17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움이라는 책의 주제를 발표한 후, 1:18에서 3:20까지 바울은 원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실제 죄, 즉 하나님께 반항하는 남자와 여자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마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인으로 만드셨는가? 5장 19-21절에서 그는 원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첫 번째 아버지 아담의 죄로 인해 정죄받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의 첫 번째 죄로부터 죄책감과 타락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대신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나쁜 예라고 주장했지만, 펠라기우스에게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니와 마찬가지로, 피니는 그것을 보편적인 탁월한 은혜에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악으로 기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성과에 따라 시험에 떨어지거나 통과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단일성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읽지 않았나요? 아, 그는 읽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여기 한두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은혜에는 자유의지, 신의 계명, 예수의 모범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는 그가 이해한 방식이 아닙니다. 예상했듯이 펠라기우스의 선거 교리는 어거스틴의 교리와 충돌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신앙이나 불신에 대한 신의 예지가 선거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 선택하셨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것을 예견하셨고, 그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용문, 예정하다(predestinate)는 예지하다(preknow)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변화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는 영광에 따라 본받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던 자들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던 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 대한 그의 해석입니다. 829, 910, 915년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성 바울의 서신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주석입니다.

그렉 앨리슨은 그의 역사 신학 책에서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바울이 출애굽기 33:19를 인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9-15에 대한 그의 해석을 인용하여 명확히 설명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단독주의입니다.

다행히도, 어떤 기독교인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충돌의 길에 있었습니다. 둘 다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논쟁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비난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지지하고 펠라기우스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반(半)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톨릭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속 신학은 종종 형식적 신학과 같지 않으며, 많은 가톨릭 신도의 민속 신학에서는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더 가깝거나, 아니, 펠라기우스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자 하는 감리교 배경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와 다른 사람들이 전한 개혁주의 가르침이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

반어거스틴주의로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들의 교회에서 복음을 믿는 동료 감리교도들이 반어거스틴주의보다는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더 가깝다고 두려워했고, 그것이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였으며, 성경 교수가 되었고, 그 후 개신교 개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지의 속박으로 고통받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상한 은혜를 보호했습니다. 유명한 네덜란드 인본주의자인 데지리디우스 에라스무스 (Desiridius Erasmus, 1466~1536)는 일반적으로 로마의 학대에 대한 루터의 비판을 환영했지만 1524년에 그와 결별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고, 루터 자신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럽의 어느 법정에서나 당신의 학문 때문에 보석으로 환영받을 보석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문단에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관해서는 앉아서 입을 다물어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루터는 강력한 고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루터가 기독교 신앙을 파괴했다고 생각한 에라스무스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책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정당화를 놓고 로마와 결별했을 때, 독일 농민들이 자녀들에게 우유를 사주는 데 필요한 돈을 쓰고 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꺼내려고 하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했을 때 루터와 동의했습니다. 아, 루터는 말했습니다. 로마의 선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교황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로마의 르네상스 교황이 면죄부 판매 수익의 50%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교황을 조롱했을 때 기뻐했는데, 제가 이 강의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입이 거칠었고, 독일 농민들은 그의 변태적인 유머를 좋아했습니다. 신학

강의를 공개적으로 녹화하는 것보다 폐쇄된 신학교 교실에 더 많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라스무스는 1524년에 의지의 자유에 관해 글을 썼고, 그 시점에서 그와 루터 사이에 단절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루터를 칭찬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극단적인 결정론인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핵심 문제인 단일신론과 시너지즘 간의 논쟁을 지적한 데 대해 칭찬했습니다.

실패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기여하는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약해진 자유의지를 고수한 6세기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노엄 가이슬러의 견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클라크 피녹의 견해였다.

저는 그것이 피니의 견해라고 말하는 데 약간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짐 패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매우 결함이 많은 신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유 선택은 죄에 의해 손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의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선보다 악에 더 쉽게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든 러프와 필립 왓슨 편집자, 루터와 에라스무스, 자유의지와 구원, 기독교 고전 도서관의 일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과 다른 많은 중요한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신의 협력하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에 호소했지만,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입장을 표명할 용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를 평가하면서, 그가 한 일을 하려면 강한 고객이 되어야 했고, 교황, 교회, 교회의 전체 전통, 특히 수도사로서

배운 후기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에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힘과 함께, 예를 들어 츠빙글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열의, 지나친 열의적 사랑과 수용의 부족이 생겼고, 그는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 또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려야 할 것을 의심 없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는 의지의 속박에 대한 글을 써서 에라스무스의 신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루터는 절대적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에라스무스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루터는 오직 신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신의 자유의지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합니다. 칼 바르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를 받아들였고, 그것과 함께 인간의 의지가 죄에 묶여 있고 스스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는 주석과 특정 신학적 결론에 관심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는 선거와 자유의지의 위치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영광의 단독주의 신학과 십자가의 시너지즘 신학을 서로 대조시켰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펠라기우스의 인간 단독주의입니다.

전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교만을 높인다. 후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교만을 억누른다. 칭의와 구원하는 믿음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은혜를 열망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강조한다.

선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간의 큰 무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와, 저는 여기에 있는 제 노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는 시너지즘인 영광의 신학을 단독주의인 십자가의 신학과

병치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교만을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인 중보자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후자, 십자가의 신학은 단일주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억누릅니다. 루터에게 선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인간의 위대한 무력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수정한 게 맞아요. 단독주의와 시너지즘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게 출판사한테 그렇게 갔을지 궁금하네요.

수정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강력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선거 교리는 그의 뛰어난 제자이자 뛰어난 제자, 그리스 학자이자 루터교 개혁의 상속자인 필립 멜란히톤에 의해 희석되었습니다. 그는 루터의 단독적 선거 관점에서 은혜로운 시너지즘으로 전환했습니다.

Loci communis, 신학적 상식에서 멜란히톤은 구원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성령,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스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강의에서는 존 칼빈과 17세기 초 네덜란드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을 다루어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선거입니다.